

노인 성생활 만족도와 영향요인

김 춘 미* · 김 은 만*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8년 현재 10.3%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이러한 증가 추세라면 2018년에는 그 비율이 14%를 넘어 고령화 사회, 2026년에는 20%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통계청, 2010). 인구의 고령화 및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제도와 노년기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다차원적인 연구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김지현, 2006).

인간의 기본 욕구 중의 하나인 '성'은 사람에게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서 여러 가지 시각에서 생각되어 왔고 논의되어 왔다. 인간의 성에 대한 관심과 흥미는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는데, 성적인 행위는 생물학적, 심리적인 요인에 의존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점차 이에 대한 흥미와 능력이 저하될 수는 있으나 성에 대한 관심과 활동은 노화과정에서 동반하는 신체, 심리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한혜자, 김남초 및 지성애, 2003). 그러나 전반적인 사회의 경향은 노인을 여성도 남성도 아닌 무성(無性)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노인의 성에 대해서는 주책스럽고 망칙하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히 지배적이다(Susan & Chirs, 2002). 이러한 노인의 성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과 무관심은 노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성문제에

해 함구하게 하는데 한 몫을 하게 하는 원인이 되며, 이는 더 나아가 성매매, 성병의 확산이나 여성 노인의 성폭력과 같은 문제들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김주희와 이창은, 2000). 그러나 노인의 성생활은 노인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과 기능은 한다는 점에서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노인의 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노인들의 32.8%가 성생활을 현재 하고 있으며(김주희와 이창은, 2000), 홀로된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노인들 스스로 고독과 외로움을 탈피하기 위하여 66.9%의 대상자들이 이성교제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배나래, 2002). 그리고 외국 노인들의 성생활 실태에 관한 조사(Brecher, 1984)에서도 60대 이상의 80% 이상, 70대의 65% 이상이 성적으로 활동적이라고 제시되고 있어서 노인들에게 있어서 성적욕구는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될 부분으로 생각된다. 노년기의 정기적인 성생활은 노인들로 하여금 삶의 기쁨과 만족감 및 친밀감을 느낄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유수경, 2003) 우울을 감소시키고(정연강, 안승례 및 전미순, 2004), 높은 자긍심을 유지하게 하고 미래에 대해 더욱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등 노년기의 건강한 삶에 영향을 미친다(Block & Bakos, 1999).

이와 같이 노인의 성과 관련된 국내 연구들은 주로 노인의 성에 대한 조사연구(김주희와 이창은, 2000)와 노인의 성생활과 성인식에 관한 연구(김기영, 2005; 양순옥, 김성실, 정금희 및 김신정, 2003; 한영현, 2006)

* 선문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교신저자 김은만 E-mail: emkim@sunmoon.ac.kr)

들로, 성생활 실태, 성생활 실태와 성생활 만족도와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노인의 욕구 충족과 노인들이 성에 대한 관심 및 성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대상자라는 것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노인들의 일반적 특성과 성생활 실태에 따른 성생활 만족도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이는 간호대상자로서의 노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임상 또는 지역사회에서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간호중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기초자료가 될 노인들의 성생활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이다. 연구의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들의 성생활실태를 파악한다. 둘째, 노인의 일반적 특성과 성생활실태에 따른 성생활 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노인의 일반적 특성, 성생활 실태와 성생활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연구대상은 H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노인대학, 노인복지회관, 경로당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연구대상자는 비확률 표출법 중 임의표출로 선정하였다. 표본수의 선정근거는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25에서 검정력 .80을 유지하기 위하여 G-power program에 의해 제시된 표본수는 180명 이었는데, 본 연구의 최종 연구대상자수는 181명이었다.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조사에 참여하기로 서면동의한 대상자에 한해서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지는 문헌고찰을 통해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표준화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지의 응답은 자가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는 연구원이 설명을 한 후 기입하도록 하였다. 자료 수집기간은 2007년 2월~12월이었다.

3. 연구의 도구

설문지는 노인들의 일반적 특성, 성생활 실태, 성생활 만족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성생활 만족도

성생활만족도 측정도구는 장순복(1989)이 Derogatis와 Melisaratos(1979)의 Sexual Function Inventory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번역한 것으로 총 10문항의 5점 척도 도구이다. 문항은 '배우자와의 성관계 만족도', '성관계 횟수', '성생활의 다양성', '성관계 후 만족감', '성교시간', '성에 관한 흥미', '성관계시 절정감', '성관계 전 애무에 대한 만족도', '배우자의 만족감에 대한 염려', '배우자와 성문제를 터놓고 이야기하는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생활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89$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17$ 이었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으며, 자료 분석을 위해 사용한 통계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성생활 특성 등은 백분율과 빈도로 산출하였다.
- 2)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 3)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성생활 만족도에 관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ANOVA를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노인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대상자의 성별분포를 분석한 결과 여성 노인이 66.3%, 남성 노인이 33.7%였다. 연령대별 분포에서는 70대가 68.2%로 가장 많았으며, 80대, 60대의 순이었다. 대상자의 교육수준은 초졸이 36.8%로 가장 많았

며, 무학 29.9%, 중졸 19.2%의 순이었다. 고졸 노인은 10.7%였으며, 대졸 노인은 3.4%였다. 전체 노인 중 부부가 함께 동거하는 비율은 40.1%로 나타났다. 노인들의 한 달 생활비는 50만원 미만인 비율이 60.3%로 가장 높았으며,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인 노인이 31.6%로 다음 순이었다. 연구대상자 중 현재 취업하고 있지 않은 응답자가 80.3%이었으며, 비정규적으로 아르바이트하는 비율이 11.2%, 정규직이 3.9%로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응답자가 15.1%이었다.

한편 연구 대상자의 배우자 건강수준을 분석한 결과 '대체로 건강함'이 35.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건강이 양호하다는 응답자는 51.3%인 반면에 건강이 나쁜 응답자는 28.5%였다. 노인들의 주요 만성퇴행성 질환의 유병율을 살펴보면 고혈압 유병율은

43.3%, 당뇨 유병율은 18.0%, 관절염 유병율은 24.7%이었으며, 질병으로 투약을 하는 노인들이 63.5%이었다.

2. 노인들의 성생활 실태

노인들의 성생활실태는 <표 2>와 같다. 본 연구대상자들은 젊은 시절 성생활에 대해 43.3%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응답한 노인들이 30%이었다. 불만족 이유는 '대가족 제도의 환경으로 편안하지 않아서' 23.2%, '피곤해서' 21.9%, '배려되지 않은 성관계' 18.1%, '상대의 일방적인 요구' 10.3%, '피임이 걱정되서' 7.1%이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성생활을 했는지에 대한 문항에서는 '그렇다' 17.1%, '그렇지 않다' 82.9%이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성생활을 했다고 응답한 노인들의 성관계 빈도를 살펴보면, 한 달에 2~3번 정도라고 응답한 비율이 53.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6개월에 2~3번이라고 응답한 노인들이 10.0%였다. 최근 성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묻는 질문에 63.2%의 노인들은 과거에 비해 만족감이 적다고 응답하였다. 28.9%의 노인들은 과거와 비슷하다고 응답하였으며, 7.9%의 노인들만이 만족감이 크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 성관계 연령대는 50대가 32.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순으로는 60대가 28.0%, 40대가 17.4%, 70대가 13.6%, 30대가 8.4%로 나타났다. 마지막 성관계 후 기간은 10-19년이 31.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순으로는 20-29년이 25.8%, 1-9년이 21.2%, 30-39년이 15.9%, 40-49년이 5.3%로 나타났다.

성생활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성파트너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노인들이 31.3%로 가장 많았고, '성적욕구가 전혀 없어서' 22.9%, '정력 저하' 11.7%, '몸이 아파서' 10.5%, '배우자의 거절' 8.5%, '나이 들어 성관계를 하는 것이 창피한 일이기 때문' 5.9%로 나타났다. 성적욕구를 어떻게 해소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무시한다'가 49.3%, 그 다음 순으로는 '다른 일에 몰두' 26.8%, '스스로 혼자 해결한다'가 14.1%순이었다.

이성교제에 대한 욕구를 묻는 응답에서 '원하지 않는다' 72.8%, '원한다' 27.2%이었다. 이성교제를 희망하는 이유로 고독이 58.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 순으로는 친밀감을 느끼고 싶어서와 생활의 불편감이 각각 14.6%로 나타났다. 이성교제를 희망하지 않는 이유로 43.6%가 지금 상태가 좋아서라고 응답하였고, 노인들이

<표 1> 노인의 일반적인 특성 (N=181)

항 목	구 분	N(%)
성	여자	120(66.3)
	남자	61(33.7)
연령	60대	23(12.8)
	70대	122(68.2)
	80대	34(18.8)
교육수준	무학	53(29.9)
	초졸	65(36.8)
	중졸	34(19.2)
	고졸	19(10.7)
	대졸 이상	6(3.4)
부부 동거여부	배우자와 함께 산다.	71(40.1)
	혼자 산다	106(59.9)
한달 생활비	50만원 미만	82(60.3)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43(31.6)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9(6.7)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1(0.7)
	200만원 이상	1(0.7)
취업상태	정규직	6(3.9)
	기회될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함	17(11.2)
	무직	122(80.3)
	기타	7(4.6)
배우자 건강상태	매우 건강	13(15.5)
	대체로 건강	30(35.8)
	보통	17(20.2)
	그다지 건강하지 못함	18(21.4)
	건강이 매우 나쁨	6(7.1)
질병상태	고혈압	77(43.3)
	당뇨	32(18.0)
	관절염	44(24.7)
	기타	25(14.0)
투약여부	투약 없음	66(36.5)
	투약 있음	115(63.5)

<표 2> 노인의 성생활 실태

항 목	구 분	N(%)
젊은 시절 성생활 만족도	매우 만족함	22(12.2)
	대체로 만족함	56(31.1)
	보통	48(26.7)
	약간 만족스럽지 못함	20(11.1)
	매우 만족스럽지 못함	34(18.9)
불만족 이유	상대의 일방적인 요구	16(10.3)
	피곤해서	34(21.9)
	대가족 제도의 환경으로 편안하지 않아서	36(23.2)
	피임이 걱정되서	11(7.1)
	배려되지 않은 성관계	28(18.1)
	기타	30(19.4)
최근 6개월 이내 성생활	유	24(17.1)
	무	116(82.9)
성관계 빈도	일주일에 한번이상	5(16.7)
	한달에 2-3번	16(53.3)
	6개월에 2-3번	3(10.0)
	1년에 2-3번	6(20.0)
성관계 만족감	중년에 비해 만족감이 적다	24(63.2)
	중년과 비슷하다	11(28.9)
	중년에 비해 만족감이 크다	3(7.9)
마지막 성관계 연령	30대	11(8.4)
	40대	23(17.4)
	50대	43(32.6)
	60대	37(28.0)
	70대	18(13.6)
마지막 성관계 후 기간	1-9년	28(21.2)
	10-19년	42(31.8)
	20-29년	34(25.8)
	30-39년	21(15.9)
	40-49년	7(5.3)
성생활을 하지 않는 이유	성적 욕구가 전혀 없어서	35(22.9)
	성파트너가 없어서	48(31.3)
	나이들어 성관계를 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기 때문	9(5.9)
	배우자의 거절	13(8.5)
	정력 저하	18(11.7)
	몸이 아파서	16(10.5)
	기타	14(9.2)
성적욕구 해소	스스로 혼자 해결	20(14.1)
	다른 일에 몰두	38(26.8)
	무시한다	70(49.3)
	기타	14(9.8)
이성교제 희망여부	원한다	34(27.2)
	원하지 않는다	91(72.8)
이성교제를 희망하는 이유	고독	24(58.6)
	친밀감	6(14.6)
	생활의 불편감	6(14.6)
	성문제 해결	5(12.2)
이성교제를 희망하지 않는 이유	자녀 반대	6(6.4)
	노인이어서 주책이다	39(41.5)
	지금이 좋다	41(43.6)
	기타	8(8.5)

서 주책이다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41.5%로 나타났다.

3. 일반적 특성과 성생활 실태 특성에 따른 성생활만족도

노인의 성생활 만족도 정도의 결과는 <표 3>과 같다. 총점 50점 중 평균 27.14점으로 총 10문항 5점 척도인 것을 감안할 때 2.71점으로 중간정도의 만족도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문항별로 살펴보면 '성교시간이 충분하다'가 2.8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나는 성에 대해 흥미가 있다'가 2.83점, '성관계 후 나는 편안하고 만족감을 느낀다'가 2.78점, '나는 성관계 횟수가 충분하다'가 2.75점, '나는 성관계시 절정감을 느낀다'가 2.74점, '나는 배우자와의 성관계에 만족한다'가 2.73점으로 나타났다. 점수가 가장 낮았던 항목은 '나와 배우자와의 성생활은 다양하다'가 2.37점, '나는 배우자와 함께 성문제를 터놓고 이야기 한다'가 2.37점, 그 다음으로는 '나는 배우자를 성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을까를 염려하지 않는다'가 2.63점, '성관계 전

애무는 나를 흥분시킨다'가 2.64점으로 나타났다(<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생활 만족도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부부 동거여부에 따라 성생활 만족도는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나서 배우자와 함께 사는 노인들이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달생활비 정도에 따라 성생활 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만원 미만의 생활비를 쓰는 노인이 성생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취업상태에 따른 성생활 만족도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의 질병상태와 투약 유무, 배우자의 건강상태에 따른 성생활 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최근 성생활여부에 따른 성생활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성생활을 하고 있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성생활만족도가 높았다. 하지만 성생활을 하지 않는 이유, 성적욕구 해소방법과 이성교제 희망여부에 따른 성생활 만족도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표 3> 노인의 성생활 만족도 정도

	최소값	최대값	평균±표준편차
나는 배우자(또는 이성친구)와의 성관계에 만족한다	1	5	2.73±0.98
나는 성관계 횟수가 충분하다	1	5	2.75±1.02
나와 배우자(또는 이성친구)와의 성생활은 다양하다	1	5	2.37±0.99
성관계 후 나는 편안하고 만족감을 느낀다	1	5	2.78±0.92
성교시간이 충분하다	1	5	2.84±0.90
나는 성에 대해 흥미가 있다	1	5	2.83±1.04
나는 성관계시 절정감을 느낀다	1	5	2.74±0.98
성관계 전 애무는 나를 흥분시킨다	1	5	2.64±1.01
나는 배우자(또는 이성친구)를 성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을까를 염려하지 않는다	1	5	2.63±1.01
나는 배우자와 함께 성문제를 터놓고 이야기 한다	1	5	2.37±1.12
전체 성생활만족도	11	48	27.14±6.56

<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생활 만족도

범 주		성생활 만족도	
		M±SD	F(p)
성	여자	26.1± 6.75	3.577(.061)
	남자	28.6± 6.09	
	전체	27.1± 6.56	
연령	60대	29.1± 6.21	1.025(.362)
	70대	27.1± 6.95	
	80대	25.5± 4.25	
	전체	27.2± 6.58	
부부 동거여부	배우자와 함께 산다.	28.2± 5.67	4.078(.046)*
	혼자 산다	25.7± 6.59	
	전체	26.9± 6.25	

〈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생활 만족도(계속)

범 주		성생활 만족도	
		M±SD	F(p)
한달 생활비	50만원 미만	25.9± 7.32	3.235(.017)*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29.1± 5.55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27.5± 6.53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28.0± 0.00	
	200만원 이상	47.0± 0.00	
	전체	27.6± 6.94	
취업상태	정규직	29.3± 5.79	1.655(.183)
	기회될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함	29.3± 4.41	
	무직	26.5± 6.94	
	기타	34.5±10.61	
	전체	27.2± 6.73	
배우자 건강상태	배우 건강	25.2± 2.44	2.491(.054)
	대체로 건강	30.7± 7.28	
	보통	24.8± 5.07	
	그다지 건강하지 못함	29.6± 7.76	
	건강이 매우 나쁨	26.0± 0.00	
	전체	28.1± 6.73	
질병상태	고혈압	27.3± 8.15	.781(.508)
	당뇨	29.2± 5.39	
	관절염	25.4± 6.19	
	기타	27.3± 4.99	
	전체	27.2± 6.90	
투약유무	투약 없음	27.8± 5.50	.708(.402)
	투약 있음	26.7± 7.19	
	전체	27.1± 6.56	

*<.05, **<.01

〈표 5〉 노인의 성실태 특성에 따른 성생활 만족도

범 주		성생활 만족도	
		M±SD	F(p)
최근 6개월 이내 성생활	유	31.0± 5.63	10.510(.002)**
	무	25.8± 6.48	
	전체	27.1± 6.64	
성생활을 하지 않는 이유	성적 욕구가 전혀 없어서	23.7± 4.09	2.146(.058)
	성파트너가 없어서	26.9± 7.59	
	나이들어 성관계를 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기 때문	25.9± 2.34	
	배우자의 거절	26.2± 6.51	
	정력 저하	31.6± 6.72	
	몸이 아파서	25.8± 6.80	
	기타	30.6± 4.72	
	전체	26.7± 6.40	
성적욕구 해소	스스로 혼자 해결	29.2± 5.37	1.813(.151)
	다른 일에 몰두	26.7± 6.46	
	무시한다	26.9± 4.83	
	기타	31.4±10.41	
	전체	27.8± 6.31	
이성교제 희망여부	원한다	28.2± 8.29	3.203(.079)
	원하지 않는다	25.0± 5.84	
	전체	26.2± 7.02	

*<.05, **<.01

IV. 논 의

인간의 발달주기를 고려할 때, 노년기의 성은 단순한 신체적 차원의 성이 아니라 기쁨이나 이완, 의사소통, 교류, 친밀감의 공유로서의 성이다(Steinke & Bergen, 1986). 즉 노인의 성은 인간관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사회적 관계를 의미하는 개념이며, 노년기에 경험하는 역할 상실이나 퇴직 등으로 인한 소외감이나 고립감을 해결해주는 삶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된다. 노인을 이해하고 변화에 적응하도록 노인을 돕는 것이 간호사의 역할로 강조되고 있으며, 노인의 성상담을 재활간호의 한 부분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노인과 관련된 각종 건강프로그램 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노년기의 성 건강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김문영과 이현주, 2001). 이에 본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성생활 실태와 성생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 중 최근 6개월 이내 성생활을 하였다고 응답한 노인들은 17.1%로 이는 노인을 대상으로 성지식과 태도를 조사한 한혜자 등(2003)의 연구결과인 19.5%와 비슷한 결과이나 노인을 대상으로 성생활 실태를 조사한 한영현(2006)의 연구에서의 29.0%, 김기영(2005)의 연구에서의 59.1%보다 낮은 편이다. 하지만 한영현 연구의 대상자는 60세 이상이고, 김기영의 연구에서는 60세 이상이 27.3%로 본 연구의 대상자보다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성생활 빈도도 많이 감소하였을 뿐 아니라 성관계시 중년에 비해 만족감이 적다고 응답한 노인들이 63.2%로 이는 김지현(2006)의 연구에서 보고한 60.0%와 비슷한 결과이다. 본 연구대상 노인들 중 젊은 시절 성생활에 만족하였다고 응답한 사람이 43.3%,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30%로 나타났는데, 불만족 이유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유가 대가족 제도의 환경으로 편안하지 않아서라고 응답하였다. 마지막 성관계 연령대는 50대가 32.6%로 가장 높았다. 마지막 성관계 후 경과기간은 10-19년이 31.8%, 20-29년이 25.8%로 나타났다. 현재의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해방이전의 출생자들로서 전통적인 가족주의 가치관에 강하게 젖어있다. 이들 노인들이 교육받고 경험해온 가치관에서는 부부간의 성관계는 애정표현이나 욕구를 충족하는 방법이 아니라 단지 자녀를 출산하기 위한 의무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전

통적 가족주의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부부 중심의 핵가족화가 되고 서구의 개인주의나 낭만주의의 가치가 보급되면서 부부간의 정서적 유대가 중요시되어 부부간의 사랑의 표현이 자연스럽게 성생활 또한 자녀출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확인이나 그 자체의 만족을 위해 행해지게 되었다(김윤정, 2003). 따라서 현재의 노인들은 성에 관한 한 상당한 가치체계의 혼란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은 자신들의 성적인 욕구와 그 욕구의 표출에 있어서의 상당한 괴리를 경험하고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노력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상담과 중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대상자들은 성생활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31.3%가 '성파트너가 없어서'라고 응답하였고, 22.9%가 '성적 욕구가 전혀 없어서'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신체적으로 아프거나 정력의 감소로 성생활을 하지 않는 대상자는 22.2%로 나타났고, 배우자의 거절이나 성관계를 창피한 일로 생각하여 하지 않는 노인들이 14.4%로 나타났다. 이는 면담을 통해 노인들의 성생활 경험을 탐색한 오진주(199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이성교제를 희망하지 않는 노인들이 72.8%로 이는 양순옥 등(2003)의 73.2%와 비슷한 결과이다. 노인들은 이성교제를 원하지 않는 이유로 41.5%가 노인으로서 주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노인에게 성관심도나 성기능이 감소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폐쇄적이고 성을 터부시하는 사회적 환경이나 문화적 배경 때문에 노인들이 노년의 성생활을 부담없이 즐길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노인 스스로도 나이가 들면 성생활은 끝났다고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 배우자와 신체적 접촉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성적으로 불가능한 특별한 연령제한은 없기 때문에 연령에 맞는 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들에게 환경을 조성해주는 사회적 배려와 관심이 요망된다(김문영과 이현주, 2001).

본 연구대상자들의 성생활 만족도는 평균 2.71점으로 김지현(2006)의 연구결과인 2.84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자들은 '성교시간이 충분하다'와 '나는 성에 관해 흥미가 있다' 항목이 높게 나타났다. 김지현(2006)의 연구에서는 '나는 배우자(또는 이성친구)와의 성관계에 만족한다'와 '나는 성에 흥미가 있다'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점수가 가장 낮았던 항목은 '나와 배우자(또

는 이성친구)와의 성생활은 다양하다'와 '나는 배우자와 함께 성문제를 터놓고 이야기 한다'로 나타났다. 이는 김지현(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노인들은 배우자와의 성관계에 만족하는 편이고 성에 대해 흥미가 있으나 성문제에 대해 배우자와 터놓고 이야기 하는 점은 아직까지 부족한 편이다. 성적 관심이나 성적 흥미에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젊은이들이 성적 흥미를 갖는 경우에는 격려를 받는 반면에 나이 든 사람들이 성교에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망측스럽다고 생각하는 선입견이 문제이다. 가장 바람직한 노후의 성은 배우자끼리 서로 사이좋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므로 평소 노후의 성교육 및 평생건강관리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노인들은 배우자와 함께 살수록 성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김지은(2009)은 노인의 성생활장해요인 중 환경적 요소로 경제(생활여건)적 요인, 그리고 사회적 요소로 성파트너 부재, 주변인식, 부정적 시각을 들었다. 노인들의 성생활 만족을 위해서 노인들의 성과 이성교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주는 사회적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경제적 여건 중 본 연구에서는 한 달 생활비가 50만원 미만인 대상자의 성생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200만원 이상인 대상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생활비 증가에 따른 성생활만족도의 변화가 일관성이 없어서 추후 이에 대한 반복 연구가 요구된다. 노인들의 성별, 연령에 따른 성생활 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김지현(2006)의 연구와 일치된 결과이다. 그리고 환자의 질병상태, 배우자의 건강상태에 따른 성생활만족도 정도 또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지은(2009)이 건강악화 및 질병과 약물복용이 노인 성생활의 장해요인이라고 한 것과 일관되지 않은 결과이다. 추후 노인의 성생활 만족도에 영향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다양한 노인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적 상황에서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중 노년기의 성생활과 성 건강과 관련된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중 노년기의 성건강을 위한 중재의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끝으로 본 연구는 일개 지역의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자가보고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므로 노인들의 솔직한 응답여부에 대한 한계가 있을 수 있

다. 따라서 지속적인 노인의 성생활 실태와 성생활 만족도에 관한 반복 및 확대연구가 요구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인들의 성생활 만족도에 대한 기초적 탐색을 통해 노인들의 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앞으로 노인의 성에 대한 중재방법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를 얻고자 시도되었다. 분석 결과 17.1%가 최근 6개월 이내에 성생활을 했다고 응답하였으며, 63.2%의 노인들은 과거에 비해 만족감이 적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성관계 연령대는 50대가 32.6%로 가장 많았고, 마지막 성관계 기간은 10-19년이 31.8%로 가장 많았다. 성생활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성파트너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노인들이 31.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순으로는 '성적욕구가 전혀 없어서'로 22.9%, '정력 저하'가 11.7%, '몸이 아파서'가 10.5%, '배우자의 거절'이 8.5%, '나이 들어 성관계를 하는 것이 창피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노인들이 5.9%로 나타났다. 노인들의 성적욕구 해소에 있어서 49.3%가 '무시한다'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 순으로는 '다른 일에 몰두한다'라고 응답한 노인들이 26.8%, '스스로 혼자 해결한다'라고 응답한 노인들이 14.1%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노인들 중 72.8%가 이성교제를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이성교제를 희망하는 이유로 고독이 58.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성교제를 희망하지 않는 이유로 노인들의 43.6%가 지금 상태가 좋아서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노인으로서 주책이라고 생각하는 노인들도 41.5%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노인들이 지각하는 성생활 만족도는 5점 척도 중 2.71점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이 성생활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보다 만족스러운 노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의 성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태도를 바꾸고 노인자신도 노인의 성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간호학적인 측면에서 중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는 이러한 중재를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의 성생활 실태와 성생활만족도에 대한 확대 반복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노인의 성에 대한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는 중재연구를 제언한다. 성에 관하

여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상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김기영 (2005). 노인의 성생활 실태와 인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서울.
- 김문영, 이현주 (2001). 노년기 성의 중요성 인지도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0(4), 675-685.
- 김윤정 (2003). 노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성생활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5), 133-143.
- 김주희, 이창은 (2000). 유배우자 노인의 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노년학*, 20(3), 185-195.
- 김지은 (2009). 노년기의 성에 대한 문헌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서울.
- 김지현 (2006). 노인의 성생활실태, 성인식 및 성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 배나래 (2002). 홀로된 노인의 재혼관 및 재혼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대구.
- 양순옥, 김성실, 정금희, 김신정 (2003). 노인의 성생활과 성의식 실태. *노인간호학회지*, 5(2), 158-170.
- 오진주 (1998). 노인의 성생활 경험에 대한 서술적 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2(2), 236-251.
- 유수경 (2003). 독신노인의 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서울.
- 장순복 (1989). 자궁절제술 부인의 성생활 만족에 관한 요인 분석.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 정연강, 안승례, 전미순 (2004). 남성 노인의 성생활과 우울과의 관계. *노인간호학회지*, 6(2), 156-162.
- 통계청 (2010). 2008 고령자 통계. Retrieved August 1, 2010,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61165
- 한영현 (2006). 노인의 성의식 및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연구*, 15, 133-146.
- 한혜자, 김남초, 지성애 (2003). 노인의 성 지식과 태도 및 교육요구. *성인간호학회지*, 15(1), 45-55.

Block, J. D. & Bakos, S. C. (1999). *Sex over 50*. NJ: Reward Books.

Brecher, E. M. (1984). *Love and aging*. Boston: Little Brown.

Derogatis, L. R. & Melisaratos, N. (1979). The DSFI: A Multidimensional Measure of Sexual Functioning. *Journal of Sex and Marital Therapy*, 5(3), 244-281.

Steinke, E. & Bergen, M. (1986). Sexuality and Aging.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12(6), 6-10.

Susan, M. & Chirs, E. (2002). Sexuality in Older Men with Mental Health Problems. *Sexual and Relationship Therapy*, 17(3), 271-279.

- Abstract -

Factors Influencing Elders' Satisfaction with Sexual Life

Kim, Chunmi* · Kim, Eun Man*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sexual life and sexual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people. **Method:** The participants were 181 elders over 65 years of age. Data were collected from February 10 to December 15, 2007 by interviews and questionnaires. **Results:** Of the respondents 17.1% still had sex in their lives but sexual satisfaction was less than that of middle-aged adults. Further, 31.8% of the elders reported no experience of sex over the past 10-19 years. The reasons for not having sex were 'no sexual partner' or 'no sexual desire'. Finally, 27.2% wanted to have a date. The main reason for dating was to relieve loneliness and the reason for not dating was 'good as it is', 'having date is shameful'.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unmoon University

sexual life was 2.71. Satisfaction with sexual life was higher for elders who had a spouse and for elders who still had sex. **Conclusion:** This study provides bases on the usefulness of various nursing intervention programs to

enhance the quality of life through better understanding of the sexual life and sexual life satisfaction of elders.

Key words : Elderly, Sexuality